

조선 후기 음악 1592~1897년

조선 후기의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왕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악기와 악보가 소실되면서 궁중 음악이 축소되었다. 양반층과 중인 계층을 중심으로 한 풍류 음악과 서민 계층을 중심으로 한 민속 음악이 발달하였다.



▲ 임진왜란 이후 궁중 음악 축소



▲ 선비층 중심의 풍류 음악 문화 형성



▲ 서민층 중심의 민속악 발달

풍류 음악

양청도드리

‘양청도드리’는 풍류 음악에 속하는 곡으로 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로 구성된 모음곡인 천년만세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악 편성으로 연주된다.

❖ ‘양청도드리’의 흥겹고 경쾌한 가락을 들으며, 풍류 음악을 이해해 보자.

橫	橫	橫	橫	①
侏	仲	黃	侑	·
橫	橫	橫	橫	┆
仗	仗	侏	侏	



橫 侑 橫 侏 橫 黃 橫 侏 橫 仲 橫 仗 橫 侏 橫 仗

▲ 양청도드리 1장 거문고보

❖ ‘양청도드리’를 연주하는 악기들을 찾아보자.



민속악 **성금련류 가야금 산조**

‘산조’는 19세기 말의 판소리와 무속 음악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기악 독주곡이다. 느린 장단인 진양조로 시작하여 중간 속도의 중모리, 빠른 속도의 자진모리를 기본으로 중중모리, 굿거리, 휘모리, 단모리 등의 장단이 추가되기도 한다. 산조에서는 점차 빨라지는 속도 변화와 연주자들의 즉흥성을 엿볼 수 있다.

❖ ‘성금련류 가야금 산조’의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며 감상해 보자.

문재숙 채보

진양조 ♩. = 30-40

중모리 ♩. = 69-72

자진모리 ♩. = 72-92

민속악 **시나위**

‘시나위’는 무속 음악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기악 합주곡이다. 정해진 가락 없이 악기마다 즉흥적인 가락을 합주와 독주로 번갈아 연주하는데, 불협화음을 내는 듯하면서도 조화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향피리, 대금, 해금, 징으로 편성되며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다른 악기를 추가하기도 한다.

❖ ‘시나위’를 감상하고 산조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자.

국립국악원 편보

대금

피리

해금